개발에 따른 유적훼손·재산권침해 예방

"古都보존법 제정 시급"

역사학대회서 발표…서명운동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거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법'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대폭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와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는 전국 10개 역사·고고학 관련 학회들이 '사료와 실증'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한양대에서 개최한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고도보존세미나'를 열고 개발로 예상되는 유적파괴를 막기위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고도보존세미나'가 일부 경주시민들의 방해로 중단된 후 두달만에 재개된 것.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계명대 김종철교수는 '경주의 개발과 유적보존'이란 논문을 통해 일대 29만평은 경주지표조사 결과 고분군 7개소, 토기요지군 2개소 등 막대한 양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신라시대의 대규모 취락지"라며, "테저와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경마장 건설 때문에 민족의 문화유산이 희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한 고속전철 경주구간(연장 7.3km)의 경우 경주시내 북서쪽~금장리·석장리(동국대 경주분교~선도산기슭~북녘들(경주驛舍 예정지)에 걸쳐 터널과 고가교(高架橋)가 지나게 돼 있어 신라의 성산(聖山)인 선도산과 남산의 유적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노선에는 발굴이 불가피한 유적이 13곳,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유적이 29곳에 이르러 문화재의 대대적인 파괴가 예상되기에 경주노선의 도심통과는 피해야 한다는 것.

김교수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기능이 미약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대폭 개정과 개발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해주기 위한 세제혜택, 각종 보조금지급이 가능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대 이강승교수도 '부여의 개발과 보존'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부여공설운동장 부지조성과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은 능산리 고분군, 부소산 등 부여의 문화재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경주나 부여 등의 고도지역에서는 광역개념으로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고도보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8회 역사학대회에서 16개 관련 학회는 공동으로 고도보존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관련기사 17면〉

김재경 기자

◇경주 東南山의 칠불암 마애불 전경. 고속전철 건설로 남산과 선도산의 유적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주 고속철·경마장 부여 공운건설 문제점 지적

"17세기 사원재건 왕실서 주도"

이강근교수 주장 억불정책 위배 소문없이 진행

경주대 이강근교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 세미나에서 '17세기 불교사원의 재건설'이란 논문을 통해 "양란후 17세기에 재건된 불전(佛殿)들은 소실되기 이전의 옛모습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불교의례, 장엄법식(莊嚴法式) 등 동시대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이강근 교수

김교수는 이 시기 대규모 사원 재건역(再建役)의 주체는 왕실과 지방관료였지만,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실 외척과 집권 관료들의 주도하에 소문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선조대의 법주사 팔상전 재건, 광해군대의 해인사 장경판고 중영 등은 왕손의 창성을, 숙종대의 금산사 대적광전 창건 및 화엄사 장육전 중건 등은 세자의 탄생을 빌 목적으로 이룩됐다는 것이 이교수의 설명.

"고려 수월관음도의 白衣 중국과 다른 독창적 표현"

ㅌ교미술'을 특집으로 다룬 미술사연구회(회장 김리나)의 학술지인 〈미술사연구〉 제8호에는 고려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를 다룬 논문이 두편 게재되어 관심을 끌었다.

'고려 수월관음도像의 연원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한 강희정씨(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는 논문을 통해 "고려 수월관음도상은 판화나 사경(寫經)이라는 형식으로 북송(北宋)대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경희씨(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도 '고려 수월관음도의 白衣에 대한고찰'을 통해 "14세기 고려 관음불화의 백의는 꽃무늬모시(花紋苧布)를 표현한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려의 창안(元)"이라고 밝혔다.

◇기사넘쳐 '한국사찰의 주련' 쉽니다.

'불교환경운동' 세미나

8일, 조계사 불교회관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제23회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여 오는 8일 조계사불교회관 1층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환경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연다. (02)765-6324.

'21C 불교복지' 조명

9일, 사회복지재단

(사)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오는 9일 오후 1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한 '지방화시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사회복지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연다.

독립운동사硏 김순석씨 최초 규명

"조선불교단은 친일 단체"

日 재가자들 한인정신 동화 위해 조직

조동·정토종 관장, 친일파 거두들 외호

"1920년에 발족하여 1940년까지 활동한 조선불교단은 3.1운동 직후 일제의 친일파 양성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동화(同化)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인 재가불교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파들을 대거 망라해 조직한 친일단체였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김순석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동 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친일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단'의 전모와 성격을 최초로 규명한 '조선불교團 연구'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논문을 통해 "당시 한일 불교계의 거물들이 두루 망라되어 조직된 불교 외호(外護)단체인 조선불교단에는 일본 불교계의 조동종 정토종 등 각宗의 관장(管長)들과 친일 거두인 박영효 이완용 권중현 등이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었으며, 최남선 이능화 한창수 한상룡 등 다수의 유력한 조선인들이 상담역(相談役), 이사, 평의원들로 참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불교단은 한국인의 정신적 동화에 그 목적을 두고 각종 사업을 전개했으며, 특히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선발하여 일본에 유학시킴으로써 그들을 친일세력의 선봉에 세우려 했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조선불교단의 전신인 조선불교대회(1929년 10월11일 열린 조선불교대회와는 다름)는 1920년 9월에 출범, 같은 해 11월10일 경성 교심사(妙心寺)에서 이사회를 열고 동년 11월20일 경성호텔에서 발회식을 가졌다. 회장에 권중현, 부회장에 이완석, 총무에 고무라(少林源六), 이사에 나까무라(中村健太郎) 등을 선임했다.

김씨는 "1920년대 조선불교단의 활동상황을 고찰하면 일제강점 시기 불교계 뿐만아니라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들의 긍정적인 활동으로서 △지속적인 유학생 파견을 통한 교육기회 부여 △명사들의 순회강연을 통한 민중들의 의식계도 △을축년(1925) 대홍수 때 수많은 인명을 구제한 사실 등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베풀었던 많은 혜택의 이면에는 식민지 총독정치를 찬양하는 매개자로서 한국인을 정신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아미타불·관세음보살 찾는 뜻은

문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으레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귀의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수많은 제불보살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떤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마음공부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동일·인천 남구 학익동〉

답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때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사위가 되고 그러듯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다 이름입니다. 부처의 나툼인 것이죠. 그러기에 '한마음'할 때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다 포함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다면서 아미타불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을 따로 찾는다면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의 부처님으로 무량수불·광명불의 의미가 있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의 명호로서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구제의 손길을 뻗친다고 합니다만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바깥으로 찾으면 그것은 공덕도 없고 마음공부도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 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 그 나툼까지도 체득하라는 것이니 밖으로 찾고 밖으로 의지한데서야 가르침을 바로 따르는 길이라 할 수 없죠.

아미타불·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의하더라도 내마음 안으로, 근본의 한마음 자리로 귀의·귀영해야 할 것입니다.

몸없는 조상이 천도되는 까닭

문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그때의 의식수준에 따라 윤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육신이 없으니 더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몸이 무너지고 없는 조상님들에 대한 천도의식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 천도식을 통해 조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김승동·카나다 토론토시〉

답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난다고 하듯이 사람이 살면서 지은 업은 터럭만큼의 에누리도 없이 그대로 과보로 나타납니다. 인과의 철칙은 살아서도 못 벗어나고 죽어서도 못 멸하는데 사람이 몸 떨어지고 나면 살았을 때의 차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무서워 한 것은 죽어서도 무섭고 살았을 때 악한 마음 먹었으면 죽어서도 악한 마음 버리질 못합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어서 죽으나 사나 입력된 것이 어디로 안가고 그냥 솔솔 풀려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디에고 걸림없이 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끼리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산 자와 죽은 자 간에도 마음은 통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영혼을 본다고 함은 어떤 고정된 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살아 생전의 마음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란 그 마음자리를 보고 보다 밝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육신이 떨어져 더이상 추가 입력이 안되는 영식은 장님인 셈인데 그런 장님을 눈 뜬 사람이 이끌어 주는 게 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의식은 마음도리를 깨우친 분, 바로 눈뜬 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나와 조상, 나와 부처가 하나임을 믿고 마음 속에 밝은 인등 하나 켜놓는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조상님과 통하지 않을 리 없지요.

그런데 흔히들 천도재를 지내려면 상은 어떻게 차려야하고 돈은 얼마를 놓아야 한다는 등 그런 것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체를 한마음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통근 떡하나, 촛불 하나라도 좋고 참으로 마음도리를 믿는다면 촛불하나 안 켜 놓아도 마음의 촛불 속에서 천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도재를 할 때 제도해 주는 부처님이나 인도해 주는 스님이나 조상님이나 내가 모두 한마음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만큼 거리가 멀어집니다.

말하는 이의 정체를 알고 싶은데

문 말하는 건 누가 하는가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각으로 알아냈다는 것이 또 생각이고 그 생각위에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하는 놈의 정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정동순·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답 그렇게 따지고 들면 진정으로 죽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리해서야 어느 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나를 봅니다. 그러니 좀 쉬셔야 하겠군요.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일체를 놓고 쉬어보세요. 좀 바보가 되어보란 말입니다. 바보가 되란다고 일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굴려서 분별하고 사량해 보았자 마음의 샘물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거기, 영리하게 머리 굴려 알아냈다고 하는 것도 거기, 바로 나를 형성케 했고 끌고 다니는 공한 그 자리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 되놓으세요. 놓고 또 놓으면 알 때가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신행과 수행심이 발현되는 〈대중불교〉를 만난다

지령 151호

북한불교는 살아있다 남북불교, 어떻게 합장할 것인가?
특별기획 지방자치시대, 어떻게 활용할까?
쇠북소리 시대착오병의 줄줄이 참사
시사 조계종 개혁 한돌을 돌아본다

생활불교 바른말 바라밀 1
수행으로 가는 길 외도선과 정법선
수행인께 듣습니다 진각종 유가심인당 혜정정사
나의 수행담 천지가 무너져도 천지는 여여부동

표지인물 불광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장 현재씨
직장불교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포교의 현장 일산 신도시 원각사
포교당 일기 '오라 오라' 농장의 텃밭 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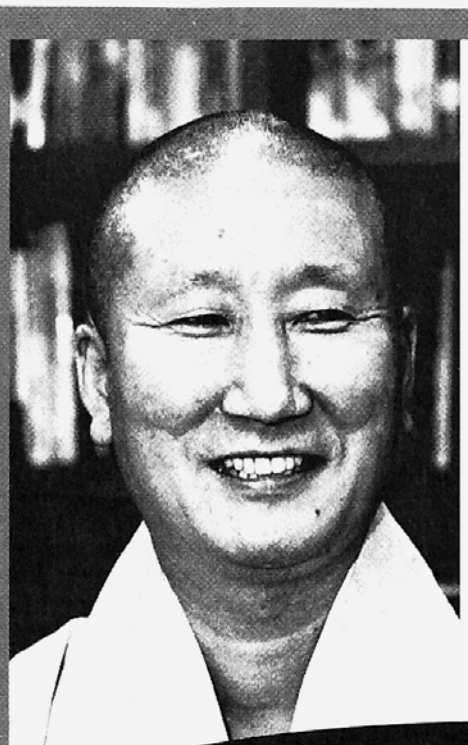
수행길의 이런 도반 해맑은 심성의 혜담 스님
봉주우르, 길상입니다 왕골 돗자리
환상의 땅, 티벳 티벳에 와 보셨나요?

불교교리 산책 업의 인과
에세이 보살불교 평화의 미륵, 구원의 미륵
법당 이야기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페사지를 찾아서 경주 사천왕사지

권말부록 · 불교방송 교재 '교리강좌'

불교 정론지
월간 대중불교
6월호
(재)대원정사 월간 대중불교
값 3,500원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월간 대중불교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